화순군, 청년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개강

청년 20명 대상…창업 · 온라인 마케팅 능력 배양

내달 18일까지 매주 2~3차례 총 19회 교육 실시

화순군이 코로나19로 지난 2월부터 연기했던 청년 크리에이터 양성교육 '1기 유튜브 과정'을 지난 27일 시작했다.

군은 오는 7월 18일까지 매주 2~3차례, 총 19회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발열체크, 지그재그 자리 배치, 투명 칸막이 설치, 손 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교육장 소독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은 화순읍에 있는 청년 크리에이터 교육장에서 진행하며, 교육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 농 · 축산업 종사자, 직장인, 예비 사업자 등 청년 20명이 참여한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홍보하고 마케팅 할 수 있는 능력을 두루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1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은 스토리 텔링 기법,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브이로그 영상 제작, 유튜브 업로드, 유통 실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올해에 추진하는 청년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은 1기 유튜브 크리에이터반, 2기 유튜브&로컬매거진 크리에이터반, 3기 유튜브&문화기획 크리에이터반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교육 일정이 다소 늦어졌지만, 교육 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청년들의 콘텐츠 생산과 마케팅 능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곡성군, '보훈가족 염원' 보훈회관 준공

지상 2층 연면적 500㎡…보훈단체 소통 및 교류 공간 활용

곡성군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곡성 보훈회관을 2일 준공했다.

곡성 보훈회관은 지상 2층, 부지 2,746㎡, 연면적 500㎡ 규모로 곡성읍 읍내리 824-1번지 일원에 건립됐다. 회관은 상이군경회 곡성군지회 등 곡성군 보훈단체 사무실과 소통공간으로 활용된다.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곡성군은 2018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 의결을 진행하고 순천시 등 4개소를 벤치마킹했다.

그리고 2019년 6월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공사를 시작해 올해 4월 20일 건축 및 주변 환경정비를 마쳤다. 총 사업비는 18억 8천만원이 들었다.

곡성 보훈회관에 입주하게 될 상이군경회 곡성군지부 최○○ 회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보훈인들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증진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나주시, 세계 최초 농기계 무인 · 자동화 시범단지 조성 박차

전남농업기술원과 MOU …첨단 농업 기술력 확보 주력

나주시가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미래 농정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농기계 무인 · 자동화 시범단지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나주시는 최근 시청 이화실에서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첨단 무인 · 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첨단 무인 · 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은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세계 최초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첨단 농기계를 접목시킨 무인 · 자동화 농업생산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농업인구 고령화, 4차 산업혁명, 스마트농업 등 미래 농정 현안에 대비하고 전라남도(나주시)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효율 무인 · 자동화 농업 생산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것이 주 목표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나주시 반남면 소재 전라남도 종자관리소 부지 에 총 사업비 400억원(국 · 도비 각 50%)을 투입, 오는 2023년까지 총 53ha 규모(논30 · 밭20 · 시설3) 첨단 농기계 무인자동화 시범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단지에는 △첨단 농업기계화 종합관리센터 △첨단 무인 · 자동화 농기계(22종 · 50대) 및 관리시설 △ICT · IOT기반 미래형 농경지 △노지 스마트팜 통합관제시스템 등이 건립 · 구축된다.

농업기술원은 시범단지 운영을 통해 무인 · 자동화 농업생산 기술을 개발 · 제공하고 나주시 스마트농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용도 지역 변경 등 성공적인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행 · 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또 양 기관은 시범단지가 청년 농업인 인재 육성의 요람이자 농기계 · IT 등 연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농촌 인력난 해소, 스마트농업 확산 등 미래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번 사업에 전라남도와의 협력과 행 ·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시범단지 조성을 계기로 2021년부터는 국내에서도 무인 · 자동화 기술을 상용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곡성군, 떡 제조기능사 국가자격증반 시작

오는 18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12차시 진행

곡성군이 6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진행하는 떡 제조기능사 국가자격증 취득반 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농촌 여성들에게 생활 활력을 부여하고 일거리 창출과 창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매주 월요일 총 12차시로 진행된다.

떡 제조기능사 자격증 시험은 곡류, 두류, 과채류 등과 같은 재료를 이용해 각종 떡류를 만드는 능력을 평가한다.

빻기, 찌기, 발효, 지지기, 치기, 삶기 등의 다양한 방식을 익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하며, 식품위생과 개인 안전관리도 평가대상이다.

곡성군은 이와 같은 자격증 시험에 맞춰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교육생 대표는 "최근 20~30대 입맛을 겨냥한 퓨전 전통디저트 카페 증가로 시장과 인력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인다. 떡 케이크 판매 등 개인 창업도 가능하다. 열심히 공부해서 6월 28일부터 시작되는 필기시험에 교육생 전원이 합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구례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구례군은 무주택 서민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구례읍 봉서리에 건설 중인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접수는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입주는 올해 12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된 국민임대주택은 6,430㎡의 대지에 지상 9층 100세대 규모로 건립되며 관리사무소,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등 복리시설을 갖추고 있다. 총 4가지 유형으로 전용면적 22㎡형 56세대, 26㎡형 12세대, 33㎡형 28세대, 48㎡형 4세대가 공급된다.

신청대상은 무주택세대주 · 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0% 이하, 총자산가액 28,8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인 자다.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구, 65세 이상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분류된다.

구례=박진호 기자

담양군, 상반기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담양군이 9일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상반기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올해 상반기 건강교실은 운영으로 안전한 분만 정보를 제공하고 모유수유 교육을 통해 모유수유의 인식전환을 도모하고자 운영하며 군 보건소 건강증진실에서 오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4회 진행된다.

군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으로, 임산부의 산전 · 후 관리 교육을 통해 안전한 분만과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도 도모할 예정이다.

오는 9일에는 국제 모유수유 전문가를 초빙, 올바른 수유자세 및 방법과 유방관리, 산전 마사지 및 모유수유 방법 실습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담양=박종영 기자